



2면

전국 공노조, 아태 마스터스 홍보 힘보탠다

전주매일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음 2월 3일)

제32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1일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도레이 군산공장에서 열린 도레이첨단소재 PPS-2호기 기공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레이 일본 본사 닛카쿠 아키히로 시장,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회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레이첨단소재 전해상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시삽을 하고 있다.

PPS 수지 2호기 증설공장 '첫 삽'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도레이첨단소재, 착공식 열어
2024년 가동 목표 국내 최대 연산 1만3600톤 규모
국내 공급망 안정화 기여·일관 생산공장 위상 강화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로 소부장 시장 파급효과 기대

새만금산업단지에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입주했던 도레이첨단소재가 1,000억원 규모의 폴리페닐렌 설퍼이드(PPS)수지 생산설비를 증설하기 위한 추가 공장 설립의 첫 삽을 떴다. 지난 6일 새만금산업단지 군산공장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천억원 연산 5천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기업측에서는 도레이 일본 본사 닛카쿠 아키히로 시장,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회장, 전해상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계기관과의 상생발전과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인 연산 1만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폴리페닐렌 설퍼이드(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 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해 세계 최

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一貫) 생산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PPS는 가벼우면서도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으로 수요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확대로 소재·부품·장비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도레이첨단소재의 PPS 2호기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증설 투자를 통해 군산시의 산업발전과 동반 성장하는 협력관계는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선도적

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013년 새만금의 가능성을 믿고 외국 투자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전북에 투자하며 전북과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투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업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며, "전북도에 입주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 최초의 외국투자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가 2016년 준공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PPS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 새만금과 인연은 각별하다"고 하면서, "세계각국으로 첨단소재를 수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아태 마스터스 문화행사 준비 '분주'

조직위, 예술버스·노상놀이 프로그램 선배
5월 풍남문 광장 등서 열릴 문화공연들도 다채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관영)가 다채로운 문화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이에 따르면 조직위는 개막식 참가선수들을 위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행사로는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과, 도립국악원 창극단을 활용한 한국의 전통미와 전라북도의 거리극 축제인 '노상놀이'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전주 풍남문 광장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주차장, 익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는 5월

12~17일까지 5일간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했다. 또 VR 체험관을 운영해 전북지역 대표 관광지를 여행하고, 드론으로 유적지를 탐방하는 등 많은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전 세계 1만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선수단 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동반인을 포함한 내·외국인도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기자

전북지역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신호탄'

전북도-LX공사, 지역 데이터산업 육성 협약 체결
전북형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개발 등 협력기로
김관영 도지사, 김정렬 사장에 명예도민증 수여

전북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및 디지털트윈,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도내 정보기술(IT)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북지역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사진 3면> 또한 김 지사는 전북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공을 치하하며 김정렬 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 지역 행정·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입점 및 상생 협력체계 구축 △전북형 디지털트윈 표준모델 개발 및 시군 확산, 공간정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데이터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센터는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을 불러들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동안 전북지역에는 데이터센터가 없어 도내 기관·기업들은 타시도에 구축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양 기관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전통적 산업에 편중된 전북도의 산업구조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성장의 발판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면에 계속> /김재훈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